

오무라 마사오를 따라 일제 말기 제주 문학 읽기

윤대석*

〈차 례〉

1. 왜 제주 문학인가?
2. 구레모토 아쓰히코(吳本篤彦), 오의진
3. 미야하라 산지(宮原三治), 이시형
4. 식민자로서 책임지기
5. 남은 문제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무라 마사오의 연구에 비추어, 일제 말기에 활약한 제주 출신 신인작가 오의진과 이시형의 삶을 드러내고 그들의 소설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간접적으로 오무라 마사오가 제주 문학, 나아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시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그동안 자료나 언어의 문제 때문에 거의 논의되지 못했던 1943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태평양 전쟁 말기 소위 '결전 문학'의 일단을 이러한 논의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우선 이 논문은 그동안 창씨명으로 불렸던 작가의 본명을 밝히고 삶을 재구성하였다. 창씨명이 구레모토 아쓰히코인 오의진은 일찍 고향인 제주를 떠나 목포에서 상급학교를 다닌 후, 천안, 광천 등지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며 일본어로 소설을 써 현상 공모를 통해 등단하였다. 창씨명이 미야하라 산지인 이시형은 고향인 제주에서 교사로 지내며 그 경험을 투영한 일본어 소설을 썼다. 해방 이후 그는 사회 변혁 운동에 가담했다가 국가 권력에 의해 학살된다.

이들의 문학은 조선적인 것 혹은 제주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의 길항을 그리고 있다. 오의진의 「금지」, 이시형의 「이어도」가 그 대표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신지방주의 이후 『국민문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무라 마사오는 그 가운데 조선적인 것, 민족적인 것의 고수로 이들 소설을 해석함으로써 어떤 편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편향이 일제 말기 제주 문학에 대한 오무라 마사오의 기본적인 시각이며 동시에 한국문학에 대한 그의 애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동대학 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

정과 구식민자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오무라 마스오, 제주 문학, 오의진[吳本篤彦], 이시형[宮本三治], 국민문학

1. 왜 제주 문학인가?

“백두산 이남에서 현해탄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던, 또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낳은 문학”¹⁾에 대한 소개와 연구에 “일생을 바친”²⁾ 오무라 마스오의 대표적인 업적을 꼽으라면 윤동주, 김용제의 문학, 그리고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연구를 들 것이다. 만약 하나 더 덧붙인다면 주저 없이 제주 문학 연구라 말할 수 있다. 오무라가 남긴 제주 문학 연구는 『제주도 문학선』(1996), 『제주도 시인선』(2009)이라는, 긴 해설을 붙인 소설 선집과 시 선집의 편역과 『『청년작가』와 제주도 출신 문학자』(1996), 「제주 문학을 생각한다」(1998, 발표는 2004), 「태평양 전쟁하 제주도 문학자들의 활동」(2014)이라는 세 편의 논문, 오성찬 시인의 시집에 대한 해설인 「상처의 깊이와 화해의 길」(2004) 등으로 갈무리되었다.

그러나 제주와 제주 문학에 대한 오무라의 관심 표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훗카이도신문』에 연재한 칼럼 가운데 네 회를 제주도 혹은 제주 문학에 할애하였으며, 문학 연구에 못지않은 오무라 마스오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연구자와 문인을 비롯한 한국인과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제주도에 대한 그의 마음 씀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것은 스스로 「제주도에 연연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썼을 정도인데, 이에 화답하듯 제주 작가

1) 오무라 마스오, 「진군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윤동주와 한국 근대 문학』, 소명출판, 2016, 697쪽. 앞으로 소명출판에서 여섯 권으로 출판된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에서 인용할 때에는 각 글의 제목과 저작집 번호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참고로 2권 이하의 저작집 제목과 출판연도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대륙이여』(2016), 『식민주의와 문학』(2017),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2017), 『한일 상호이해의 길』(2017), 『오무라 마스오 문학 앨범』(2018).

2) 「대담 한국문학에서 일본은 무엇인가」, 『저작집 4』, 169쪽. “한국문학이란 역시 일생을 바칠 만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회의는 기관지 『제주 작가』를 통해 생전에는 그의 회고록을 연재하고 사후에는 특집을 마련하여 그를 추도하였다.³⁾ 오무라 마스오가 걸어온 연구 역정을 관심의 크기로 본다면 “중국 문학 전공에서 출발한 저자가 조선 문학을 거쳐 연변의 조선 문학으로 나아갔고 그 끝에 제주도 문학이 놓였음”⁴⁾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애초에 정치·경제학에서 문학으로 갔으며, 문학에서도 중국 문학에서 한국문학으로, 또 중국 조선족 문학으로, 그리고 마침내 제주 문학에 이르렀을까. 그 자신의 말대로 왜 제주도에 연연했(こだわる)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가 낳은 제주 문학은 한국문학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제주문학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문학 중의 하나의 지방문학이다. 그러나 한국 안에서 가장 쓰디쓴 경험을 한 제주도의 문학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한국적이며, 그것을 통해 세계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⁵⁾

제주 문학은 “지방문학”이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때문에 가장 “인간적”이면서 “한국적”이라 세계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최초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 『제주 문학선』(1996)의 해설(『탐라 이야기』)에도 들어있어, 그것이 그가 제주도와 제주 문학에 품었던 일관된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무라 마스오의 학문 세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장문석은 그의 관심이 제주와 만주라는 비균질적인 공간으로 확장됨으로써 한국문학을 동아시아적 계기로 복수의 정체성을 읽어내고자 했다고 평가했다.⁶⁾ 그러나 오무라가 제주를 비균질적인 공간으로 파악하거나 그것에서 동아시아의 복수적 정체성을 읽어내고자 했다

3) 오무라 마스오, 「조선 문학 연구에 뜻을 품고 50년」, 『제주 작가』, 2019년 겨울호, 2020년 봄호; 특집 「공감과 연대」, 『제주 작가』, 2023년 봄호.

4) 김윤식, 「열정과 그 지속성에 대하여」, 『저작집 1』, 5쪽.

5)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제주도」, 『저작집 5』, 38쪽.

6) 장문석, 「조선문학을 권함」, 『한국학연구』, 2019.8, 518-519쪽.

기보다는 오히려 변방에서 한국문학의 핵심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해방의 의지를 읽어내려 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오키나와라는 존재가 공간적으로 중앙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에 유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도 변방의 문학인 제주 문학을 통해 그 “전체상이 보여질 수 있”⁷⁾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지나 문학의 문제는 일본 문학을 개혁하는 문제로 바뀔 때 비로소 의미를 지”⁸⁾닌다고 하며 중국이라는 타자를 계기로 일본의 주체성을 세우려 했던 스승 다케우치처럼, “우리 일본인들이 한국 문학 연구를 하는 것은 크게 말해 일본인의 아시아관을 변혁하는 데 있”⁹⁾다고 말하는 오무라 마스오에게 한국문학의 변방인 제주 문학은 그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한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점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중국 쪽에서 백두산에 올랐을 때 다음은 최남단의 제주도 한라산에 오르리라 마음먹었다. 그 2년 후에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을 저자의 눈으로 보고 나서 제주도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략) 작품을 읽고 선택하고, 번역하는 데는 따로 3년이 걸렸다.¹⁰⁾

그와 더불어 오무라의 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장 쓰디쓴 경험을 한”이라는 표현이다. 이 말은 “고난의 땅”, “푸대접”, “신산하기 그지없는 삶”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그는 이를 제주 문학, 나아가 한국문학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오키나와의 아픔이 일본 전체의 아픔의 첨예한 표징과도 같은 것”¹¹⁾이듯 제주도인의 신산하기 그지없는 삶은 한국인의 신산함의 첨예한 표징이다.

그러나 제주 문학이 그린 신산하기 그지없는 삶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7) 「탐라 이야기」, 『저작집 1』, 414쪽.

8)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옮김, 『고뇌하는 일본』, 휴머니스트, 2011, 78쪽.

9) 「대담 한국문학에서 일본은 무엇인가」, 『저작집 1』, 182쪽.

10) 「탐라 이야기」, 『저작집 1』, 413~414쪽.

11) 『청년작가』와 제주도 출신의 작가, 『저작집 1』, 392쪽.

아니라, 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의 열망을 품은 것이었다. 신산한 삶에 대한 절망은 곧 “자유가 속박된 인간의, 광명을 얻기 위한 투쟁, 그 에너지의 근원”¹²⁾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도 오무라는 “절망은 길이 없는 길을 가야 하는 저항에서 나타나며, 저항은 절망의 행동화로 드러난다.”¹³⁾라고 했던 스승 다케우치와 닮아있다. 다케우치가 루쉰과 중국 문학에서 본 것을 오무라는 제주 문학에서, 그리고 한국문학에서 보고자 했다.¹⁴⁾ 절망을 절망하는 문학에서 타자의 주체성을 발견하여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에 비추는 것, 그것이 한국문학 연구라는 오무라 마사오의 평생 작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 제주 문학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한국적이며, 그것을 통해 세계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글은 제주 문학에 대한 오무라 마사오의 연구 한 가운데에 놓인 일제 말기의 두 신인 작가에 대한 연구를 따라 읽으며, 그 논리와 정서를 이해하고, 그의 연구를 보충하고 수정하며 또 그것과 격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는 가운데 오무라 마사오에게 한국문학이란, 한국문학 연구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작은 암시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제 말기 제주도 출신 신인 작가 가운데 조선에서 활동한 사람은 구레모토 아쓰히코(吳本篤彦), 오정민, 이시형이다. 이들에 대한 오무라의 연구는 「제주문학을 생각한다」(1998, 발표는 2004)와 「태평양 전쟁하 제주도 문학자들의 활동」(2014)으로 발표되었다. 전자는 민요, 유배문학에서 시작하여 1996, 97년에 나온 『제주문학전집』까지 제주 문학을 통사적으로 기술하는 가운데 구레모토와 이시형에게 『국민문학』지와 이시형, 구레모토 아쓰히코라는 제목으로 한 장을 할애한 것이고, 후자는 제주 문학 가운데 세 사람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그 외에 이 시기에 일본에서 활동한 작가 이영복과 양종호는 따로 『청년작가』와 제주도 출신 문학자(1996)에

12) 「나와 조선」, 『저작집 1』, 692쪽.

13)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옮김, 『내재하는 아시아』, 휴머니스트, 2011, 249쪽.

14) 오무라는 “무언중에 그분의 생각이 제 안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생각”(『조선문학 연구자 오무라 마사오의 삶과 문학』, 『저작집4』, 480쪽)한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다케우치의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논의는 별고를 요하기에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다.

서 다루었다. 이들 가운데 이 글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작가는 구레모토 아쓰히코와 이시형이다.¹⁵⁾

2. 구레모토 아쓰히코(吳本篤彦), 오의진

구레모토에 대해서 오무라는 “고모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적다. 본명도 죽은 해도 모른다.”라고 전제하지만, 그가 쓴 글을 통해 “제주도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¹⁶⁾라고 단정한다. 그 외에 그가 다양한 현상 문예에서 입선한 것을 밝히고 『국민문학』에 ‘신인추천’으로 문학적 출발을 한 것이라 했을 뿐, 그의 행적은 소략하게 서술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 논문은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를 보충하고자 한다. 그의 행적은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어 그 분석에도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일제 말기에 등장하여 일본어로만 창작한 신인들이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의 작품 「굴레」가 실려 있는 『신반도 문학선집1』(인문사, 1944)에서는 작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20년 8월 전남 제주도에서 태어나다. 목포상업 졸. 1941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모집 작품에 처녀작 「귀착지」 입선. 이어서 「한춘」, 각본 「파도」 등 입선하다. 1943년 9월 「금지」 신인추천으로 『국민문학』에 발표.

구레모토(吳本)가 보통 오 씨의 창씨명임을 감안하여, ‘1920년 8월 제주 출생, 오 씨’를 단서로 목포상업학교의 학적부에서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¹⁷⁾ 오의진(吳義珍)이 그인데, 다음은 학적부와 그

15) 이 두 작가가 일제 말기에 신인 작가로 등장한 맥락에 대해서는 윤대석의 「일제 말기의 등단제도와 제주도 출신 신인 작가」(『국제어문』, 2022.9)를 참조할 것.

16) 「태평양 전쟁하 제주도 문학자들의 활동」, 『저작집 3』, 14~15쪽.

17) 목포상업학교 학적부를 토대로 「일제시기 목포공립상업학교의 학생 구성과 내선공학(內鮮共學)」(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23.9)을 쓴 목상고등학교 박오성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

밖의 자료를 통해 그의 삶을 재구성한 것이다.¹⁸⁾

오의진은 1920년 8월 19일 전라남도 제주도(島) 제주읍 삼도리에서 태어났다.¹⁹⁾ 부친은 오용준(吳龍俊)으로 1886년생이며 최소한 오의진이 목포 상업에 다닐 때까지는 삼도리(현재 제주도 구도심인 삼도 2동)에 거주했다.²⁰⁾ 보증인관과 가족 상황란에 아버지의 직업이 엇갈리고 있으나, 자전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지」를 토대로 판단하면 들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용준은 36세였던 1921년 4월 개교한 제주 최초의 민립학교인 명신학교와 그와 연관된 청년 활동을 금전적으로 여러 차례 지원한 것²¹⁾으로 보면 오용준은 이때 제주의 지역 유지였고, 나아가 어쩌면 민족의식이 투철한 민족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²²⁾

오의진의 가족 관계를 보면 3남 1녀 가운데 삼남이었는데, 조사 시점인 1935년에 큰형은 회사원, 작은형은 동양음악학교 재학중, 여동생은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동양음악학교(현재 도쿄예술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테너 오창진(吳昶珍)이 작은형임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신인음악회(1939. 4. 28.)로 조선 음악계에 데뷔하여 일제 말기에 성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²³⁾ 해방 후에 오창진은 1945년 12월에 결성된 조선음악가동맹중앙의 집행위원이었으며²⁴⁾ 덕수상업학교 음악 교사로 지내며 한국 최초의 중등 음악교재인 『중등 음악』(1947)을 저술하여 문화당(현재 미래엔)에서 출판하기도 했다.²⁵⁾ 그는 한국전쟁 외중

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8) 별다른 주석이 없는 한, 졸업할 때까지의 정보는 학적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19) 제주도에 사는 오 씨 대부분은 군위를 본관으로 하나, 종친회에 문의한 결과 오용준이나 오의진이라는 인물은 족보에 올라 있지 않다는 회답을 받았다.

20) 1921년 제주군 중면 삼도리 원도를 보면, 삼도리 847번지 대지가 오용준 소유로 되어 있어 그곳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오용준이 1953년 제출한 「실향사민 안부 탐지 신고서」에서는 본적지가 삼도리 900번지로 되어 있다. 두 곳 모두 현재 서문사거리 부근으로 이 지역은 소설 「금지」의 공간적 배경이다.

21) 「명신학교 신축 연금」, 『동아일보』, 1921. 10. 15., 「기독교청년 음악연주」, 『동아일보』, 1922. 8. 8.

22) 명신학교 설립을 둘러싼 제주 지역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28~35쪽 참조.

23) 「신인음악회 출연 인물」, 『조선일보』, 1939. 4. 28. ; 「안주 조유에 성사일 남랑 음악대회 개최」, 『동아일보』, 1940. 7. 20. ; 「조선음악협회 신인의 밤」, 『경성일보』, 1941. 10. 1.

24)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서, 2012, 541쪽.

인 1950년 8월에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고되었으나,²⁶⁾ 일가족이 모두 북한으로 간 점, 음악가동맹 중앙집행위원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납북보다는 월북으로 짐작된다. 이 신고서를 통해 오창진이 오의진보다 다섯 살 많은 1915년생임도 알 수 있다.

오의진은 6년제 제주보통학교(현 북초등학교)를 마치고 고향 제주를 떠나 1934년 14세의 나이로 목포상업학교(현재 목상고등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목포상업의 평균 입학 연령이 조선인 14.1세인 것을 감안하면,²⁷⁾ 정상적인 입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입학한 것은 내선공학이 시행된 제3차 조선교육령(1938. 4) 이전이었지만, 목포상업은 발족할 때부터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비율이 1 대 1인 모범적인 내선공학 시범학교로서²⁸⁾ 1934년 입학생의 경우 총수 106명에서 조선인 51명, 일본인 55명이었다.²⁹⁾ 졸업반인 1938년에 키 165.5cm, 몸무게 60kg으로 당시로서는 보통 체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취직을 준비하는 5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성실한 성격이라 해도 좋을 것이고, 성적은 106명 가운데 1학년에서는 5등으로 우수한 편에 속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져 5학년에는 45등으로 중간에 머물렀다. 그리고 개별 과목 성적을 보면 수학 점수가 40점대로 매우 낮고, 주산·부기·회계 등 상업 관련 과목의 점수가 60~70점대로 보통인 반면, 언어 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조선어,³⁰⁾ 만주어³¹⁾는 모두 80점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중등학교 성적이 한

25) 「오창진 선생 저 중등음악」, 『한성일보』, 1947.12.3. 그가 쓴 음악교재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로 볼 수 있다.

26) 「실향사민 안부 탐지 신고서 4327 오창진」, 1953. 신고인은 부친 오용준이다.

27) 박오성, 「일제시기 목포공립상업학교의 학생구성파 내선공학」, 『청람사학』, 1923.6, 78쪽.

28) 위의 논문, 72쪽.

29) 「중등학교 합격자」, 『조선일보』, 1934.3.28. 여기에 오의진을 포함한 1934년 목포상업학교 합격자의 명단이 실려 있다.

30) 정식 명칭은 '조선어급한문'인데, 내선공학이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들도 이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다. 참고로 이 과목 성적이 4학년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바뀐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된 1938년에는 목포상업학교가 조선어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 만주어는 5학년 때 배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설 「금지」에서 중요한 서사 공간 가운데 하나가 '만주어'를 특기할 만하다.

사람의 자질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스스로 작가가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그 자신 “문단에 대한 동경이 한발 앞서 가고 있었”³²⁾다고 말했던 것에서도 그런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상업학교 학생으로서 점점 성적이 하락한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추측을 더 해 보면, 이 시기 습작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그가 목포상업에 재학하던 시기에 습작을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언어로 했을까. 어떤 문학잡지를 보았으며, 어떤 작가, 작품을 좋아했을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일제 말기 오로지 일본어로만 창작한 신인 작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려진 그의 모든 소설이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소년 김대중이 입학한 1939년 4월 오의진은 목포 상업학교 졸업과 동시에 동일은행에 취직하여 천안 지점에 발령을 받는다. 1941년 10월에는 주소가 천안읍 본정으로, 1943년 4월 이후부터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동일은행으로 되어 있어 그 사이에 천안지점에서 광천지점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1931년에 한일은행과 호서은행이 합병하여 출범한, 경성에 본점을 둔 동일은행에서 오의진은, 충남 예산에 본사를 두고 충남을 중심으로 영업하여 광천 지점(1917.5), 천안 지점(1918.10)으로 넓혀갔던 구 호서은행 계열에 속했던 듯 하다. 오의진은 해방 전까지 광천에서 은행원으로 지내는데, 당시 근처의 석면 광산으로 호황을 맞이했던 광천은 그의 여러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1943년 10월 동일은행이 한성은행과 합병하여 조흥은행이 된 이후에도 최소한 1945년 2월까지 그는 광천지점에서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경성일보』, 1945.2.7.).

“문단에 대한 동경이 한발 앞서 가고 있”던 오의진이 작가가 되기 위해 한 일은 ‘국어(일본어) 문학’ 현상 공모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³³⁾ 2

32) 구레모토 아쓰히코, 「내가 걸어온 길」, 『국민문학』, 1944.5, 43쪽.

33) 일제 말기 신인의 등단에 관해서는 윤대석의 앞의 논문을 참조. 당시 많은 문학 지망생들이 문학

대 일간지와 3대 문예지가 폐간된 1941년 4월 이후 한글 작품을 공모하는 매체는 『매일신보』밖에 없었고, 그것도 1942년 말까지였는데, 그가 거기에 응모했는지도 모른다. 또 그가 한글로 작품을 써서 ‘신인 추천제’를 운영하던 폐간 전의 『문장』이나 다른 한글 잡지에 투고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일본어 작품 현상 공모에 그가 응모한 흔적뿐이다.

- ① 1941.10 소설 「귀착지」: 1941년 국민총력 조선연맹 문화부 모집 문화 익찬 현상 소설에 입선. 인쇄 여부는 불명.
- ② 1942.5 소설 「양지의 집」: 조선문인협회 모집 현상 소설 예선 통과. 인쇄 여부는 불명.
- ③ 1943.3 각본 「파도」: 저축 선전극 각본. 인쇄 여부는 불명.
- ④ 1943.11 소설 「겨울 동백꽃」: 사법보호소설. 인쇄 여부는 불명.³⁴⁾

그는 현재 확인되는 문예 현상 공모의 대부분에 응모하였는데, 그 상당수가 입선하거나 예선을 통과하였다. 심지어는 “보통범 보호, 사상범 보호, 소년범 보호를 주제로 하되 영화, 방송극, 물어 등으로 각색할 수 있는 흥미 있는 것”³⁵⁾을 요구한 조선사법보호협회 주최의 현상에도 응모하여 입선하였다. 입선은 하였지만 1등이 아니었기에 그의 작품은 지면에 실리지 못하거나 상연되지 못했다.³⁶⁾ “나는 현상 문학이라는 밭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

현상 공모에 열심히 응모했는데, 그 가운데 해방 이후에도 활동을 한 대표적인 작가로 한무숙을 들 수 있다. 창씨명이 金江 戊淑인 한무숙은 1943년 12월 조선문인협회가 공모한 장편소설 현상에 「등불을 든 여자」가 2등으로 당선되었고, 1945년 2월에 조선문인보국회가 현상 공모한 이동 연극용 국어극 각본에 「마음」이 입선(3명)하였으며, 1945년 7월에 연극문화협회가 현상 공모한 국어극 각본에 「서리꽃」이 3등으로 당선되었다. 모두 지면으로는 발표되지 못했으나 「마음」은 신생극단에서 상연 예정이라는 기사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세 편 모두 일본어 작품임은 말할 것도 없다.

34) 「태평양 전쟁하 제주도 문학자들의 활동」, 『저작집 3』, 10~11쪽.

35) 「사법 보호 논문, 소설, 표어 현상모집」, 『매일신보』, 1943.9.15. 이 소설은 1942년 9월 11일 JODK에서 방송 소설로 낭독된 바 있는데(『경성일보』, 1942.9.11.), 현상에 당선된 시기보다 방송 시기가 앞선 이유는 알 수 없다.

36) ①의 경우 1등은 『경성일보』에 연재되었고(줄고 참조), ③의 경우는 1등 두 작품이 같은 해 5.19~23에 부민관에서 공연되었다(「저축 선전극 성보악극대 공연중」, 1943.5.23.).

로 많은 현상에 응모한 그였지만, 작품을 실어주지 않아 “문단에 이름을 올릴 계기를 붙잡지 못했다”³⁷⁾다. 그 가운데, 내용을 볼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지의 집」은 그 제목에서 나중에 발표되는 「궁지」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오의진의 문단 입성은 마침내 다섯 번째 도전에서 성공한다. ⑤ 『국민문학』의 ‘신인 추천제’가 그것이었다.

‘친일문학’이 대세를 점한 가운데 김사량의 「물오리섬」, 「태백산맥」, 김종환의 일련의 시 등이 실려 민족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³⁸⁾

오무라는 구레모토와 이시형을 『국민문학』에 발표한 작가로 묶은 다음 『국민문학』의 성격을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문학』의 일반적 성격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서술되는 이시형과 구레모토의 소설 분석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친일문학’과 민족적 정체성의 조화를 꿈꾸었던 『국민문학』과 최재서의 이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서술이기도 했다.

두 편이 추천됨으로써 등단한다는 규칙에 따라 구레모토는 「궁지」(1943.9), 「기반」(1943.11)을, 이시형은 「이어도」(1944.8), 「신임교사」(1945.2), 「토피」(미게제)을 투고하였고,³⁹⁾ 그 가운데 편집자가 게재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작가 모두 조선적 정체성 혹은 제주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먼저 신고, 시국적인 내용의 작품을 나중에 실었다. 이를 통해 『국민문학』이 여전히 시국적인 요구보다 조선적 정체성 쪽에 기울어 있었거나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시형의 경우 투고한 세 편 가운데 조선적인 것 하나, 시국적인 것 하나가 추천되었던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37) 구레모토 아쓰히코, 「내가 걸어온 길」, 42~43쪽.

38) 「제주 문학을 생각한다」, 『저작집 1』, 382쪽.

39) 신인에게는 두 편의 추천작 이외에 문학에 대한 각오를 드러내는 글을 실을 기회를 주었다. 구레모토의 「내가 걸어온 길」(1944.5), 이시형의 「애정의 날개」(1944.9)이 그것인데, 후자를 보면 이시형의 경우는 세 편을 투고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의진은 『국민문학』에서 신인 추천으로 등단했음에도 현상 응모를 멈추지 않았다. ⑥1944년 5월에 발표된 조선문인보국회 현상 소설에 응모하여 장편소설 『향연』이 1등 없는 차석으로 당선되는데, 이 소설은 나중에 ‘해녀’로 제목을 바꾸어 『녹기』의 후신인 『홍아문화』(1944.7)에 실린 것으로 추정된다. 자매지 『신여성』(1944.7)에 실린 『홍아문화』 1944년 7월호 광고에 “입선 소설 해녀”라 적혀 있으며, 최재서는 이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해녀』는 장편으로 조선문인보국회 모집에 당선한 작품”⁴⁰⁾이라고 했던 것으로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잡지 맨 마지막에 온전히 실릴 정도로 장편이라기보다는 중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소설이 제3회 국어 문예 총독상 후보에 오른 것⁴¹⁾도 해당 잡지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배가시킨다. 제주 문학을, 나아가 조선적 혹은 제주적 정체성과 시국을 어떻게 조화시켰을까를 문제 삼는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

해방 이후 오의진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제주 4·3의 희생자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⁴²⁾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둘째 형 오창진에 대한 남북 조사 신고서가 품고 있는 신산한 풍경, 제주도에서 남의 집 방 한 칸에 얹혀사는⁴³⁾ 아버지 오용준이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노구를 이끌고 서울까지 올라와 둘째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그 사정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 본명을 알려지게 된 만큼 앞으로 오의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40) 최재서, 「금년의 신인군」, 『국민문학』, 1944.12, 27쪽.

41) 「총독상 후보작품」, 『경성일보』, 1945.2.7. 수상자는 정인택으로 결정되었다(「제3회 총독상 정인택씨로 정하다」, 『경성일보』, 1945.3.20.).

42) 「김찬흠 선생의 제주인물 대하실록(59)」, 『제주일보』, 2018.10.22.

43) 오용준은 현 거주지를 “제주시 일도2동 000번지 고봉길(高奉吉) 방”이라 적었다.

3. 미야하라 산지(宮原三治), 이시형

이시형은 일제 말기 창씨명으로도만 활동한 신인 작가 가운데 드물게 본명이 알려진 경우이다. 일찍부터 진학과 취업을 위해 활동의 장을 육지로 옮긴 오의진과는 달리 계속 제주도에 머물다 거기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오무라 마사오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편 『제주문학 1900~1949』에서 이시형의 이력을 인용하고 있을 뿐인데, 아마도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작가들의 행적을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했던 듯 더 이상 캐보지는 않았다.

북제주군 애월에서 출생. 경성사범 강습과를 나와서 소학교 교사를 했고, 혜화전문학교 홍아과에 입학. 1942년 졸업했다. 함경북도에 있는 경성공립농업학교의 교사를 거쳐, 1943년부터 해방 후까지, 제주농업학교 교사를 했다. 미야하라 산지라는 이름으로 「이어도」가 1944년 8월호에, 「신입교사」가 1945년 2월호에 『국민문학』에 추천돼 문단에 등단하였다.⁴⁴⁾

제주도는 아직도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이라 이시형의 후손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4·3 사건 관련자인 때문인지 대부분의 자료들은 없어졌지만, 후손이 제공해 준 가계도와 새롭게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기존 연구보다 조금 자세히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시형은 1919년 1월 13일 전주 이씨인 이영화와 신원하의 삼남으로 제주군 신우면 애월리에서 태어나 신우보통학교⁴⁵⁾를 졸업했다. 맏형 이관석(李琯石, 1902~49)은 그가 보통학교를 다닐 때에 그 학교의 촉탁교사였다. 이관석은 제주에서는 잘 알려진 교육자인데,⁴⁶⁾ 자신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

44) 「태평양 전쟁하 제주도 문학자들의 활동」, 『저작집 3』, 25쪽.

45) '신우'란 '애월'의 당대 행정 명칭으로 1935년 이후에는 현재처럼 '애월'로 바뀐다.

46) 「김찬흠 선생의 제주 인물 대하실록 - 민중 계몽 · 교육 기틀 마련 위해 혼신의 노력」, 『제주일보』, 2022.3.7. 여기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된 이관석의 삶은 다음과 같다. 이관석은 제주농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찍부터 청년운동에 뛰어들어 제주애월청년회를 창

이고 17살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시형에게는 형이라기보다 거의 아버지
 지와 같은 존재였다. 오히려 다섯 살 아래인, 이관석의 장남이자 이시형의
 조카인 이한익(1924~50)⁴⁷⁾에게 동류의식을 느꼈던 듯하다. 이시형에 대한
 만형의 영향은 매우 컸던 듯 보이는데, 그것은 이시형이 아이치현에 있는 니
 시오(西尾) 잠사학교를 마치고 귀국한 후 교사가 되기 위해 다시 경성사범
 강습과를 다닌 데서도 드러난다. 경성사범 강습과를 졸업한 이후 1937년에
 전남 곡성의 삼기 보통학교 촉탁교원, 1938년에 함평의 함평 북심상소학교
 훈도를 지낸다. 그러다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혜화전문 홍아
 과에 입학하여 1942년 졸업한다. 그후 함경북도 경성농업학교 교사를 잠시
 지내다, 고향으로 돌아와 1943년 11월 16일에 제주농업학교 교유가 되어
 1947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다.

이시형의 경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평생 교사로 지냈고, 그에 대한 사
 명감도 투철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소설은 두 편밖에
 되지 않지만 두 편 모두 교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교사란 어떠해야 하며 가르
 침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문학』 신인 추천에 투고하였
 지만 발표되지 않고 사장된 나머지 한 편의 소설인 「토필(土筆)」 또한 “어둠

림하고 주도하였다(『매일신보』, 1923.6.14. ; 『중외일보』, 1929.5.2.). 1925년부터 1937년까지 신
 우-에월 보통학교 촉탁 교사를 지내다가, 1937년 12월에 초등교원 시험 제3종에 합격하여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이름이 바뀐 에월심상소학교의 훈도, 위미심상소학교의 훈도를 지냈다. 1939년
 10월 시행된 초등교원시험 제2종에 합격하여 위미심상소학교, 위미국민학교 훈도를 지내다가
 1941년부터 위미국민학교 교장이 된다(『조선총독부 직원록』). 김찬흡의 글에서는 1939년 6월 위
 미심상소학교가 개교했을 때부터 이관석이 교장이라 했으나,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그전에는
 교장 부제인 위미심상소학교의 훈도로, 1941년부터 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교장이 임명되지 않
 아 이관석이 교사로서 위미초등학교 설립에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교장일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
 다. 위미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교내에 1946년 송덕비가 세워졌다. 해방 이후에
 는 미군정청에서 학무국장으로 제주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였으나, 1947년 삼일절 만세 사건에
 항의하는 공무원 파업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된다. 경찰에서 풀려난 이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제
 주중학교 교장으로 지내다가 4·3이 일어난 직후인 1948년 10월 31일 다시 경찰에 체포되어 사라
 봉 인근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참고로 그의 창씨명은 미야하라 간지(宮原寬治)였다.

47) 후쿠오카현 교토군(京都郡)에 있는 현립 도요쓰(豊津) 중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 에월국민학교
 교사를 지내며 에월읍가로 알려진 〈애향의 노래〉를 작사·작곡했다. 해방 후 에월중과 제주중의
 음악 교사를 지내다 숙부인 이시형과 함께 1950년 예비검속으로 잡혀가 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추
 정된다(『김찬흡 선생의 제주인물 대하실록(228)』, 2022.10.17. ;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밖에 모르는 고아들에게 이상을 주어 국가의 요청을 깨닫는 장정으로 만들어 나가는”⁴⁸⁾ 것을 의도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사 혹은 적어도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일제 말기에 학교란 어떤 곳이며, 교사란 어떤 존재였을까. 당시 제주농업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다.

학교생활은 병영화되고 학생 활동은 모두 군대화시켰다. 현 제주축후소 남쪽에 제주 신사가 있었는데 이곳은 일본의 개국신인 천조대신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제농 재학생들은 소위 대조봉대일(매월 8일), 국경일, 기념일 등에 완전무장하고 그곳에 참배하도록 일제는 강요하였다. 또 등산 전투훈련, 도두리 왕복 1만 미터 마라톤 대회, 애월 왕복 야간 행군 훈련, 도 일주 완전무장 행군 훈련, 전투 훈련 위주의 교내 체육대회 등을 쉴 새 없이 강행하였다.

이러므로 학교는 완전히 휴업 상태에 이르렀고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 패전이 가까워오자 모두 일본을 위한 결사대로 조직된다. 그래서 명칭도 전학생 조직은 ‘제주 공립 농업학교 신풍(神風)대’라 명명하고 학년 명칭도 적성(赤誠)대, 신주(神州)대 등으로 바뀌고 교련 교사에게만 호칭을 교관이라고 부르던 것을 모든 교사에게 00교관이라고 호칭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편성과 호칭은 일본 안에서도 아니 쓰던 제도인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강요하였으며 아울러 제농생에게는 연합군이 상륙하였을 때 결사대로 투입하기 위한 일제의 간교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⁴⁹⁾

1944년 7월 사이판 함락, 10월 연합군의 필리핀 상륙 이후 본토 결전을 준비하던 일본군은 제주도를 본토 방어의 최후 보루로 삼는 ‘결7호 작전’을 1945년 2월 발동하여 제주도를 군사 기지화하였는데,⁵⁰⁾ 그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제주 지역에서 더 철저하게 학교는 병영화되고 학생들은 결사대가

48) 미야하라 산지, 「애정의 날개」, 『국민문학』, 1944. 9, 39쪽.

49) 제농팔십년사 편찬위원회, 『제농 80년사』, 제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1990, 174~175쪽.

50)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전예원, 1994, 26쪽.

되며, 교사는 군사 교관이 되는 모습을 위의 인용문은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 제주 출신 재일 시인 김시종이 회상하고 있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의 국민학교에서 제자에게 전차병학교 입학울 강요하거나 조례 시간 전에 교내를 순회하며 일본어로 질문해서 대답을 못 하면 뺨을 때리기를 밥먹듯 하는 그런 교사들(『조선과 일본에서 살아가다』, 이와나미신서, 2015) 사이에서 제주농업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한 ‘미야하라 교관’은 어떠했을까. 남아 있는 자료는 없기에 소설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1945년 8월 15일 오전 학생들은 모두 운동장에 모였고, 학생대표들만 교직원들과 함께 숙직실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기다렸다. 전날 저녁부터 15일 정오에는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성내에 돌았었다.

조용한 술렁임 속에서 정오가 되자 라디오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일왕의 침통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대표들은 고르지 못한 수신 상태와 일왕의 표현만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파악되지 않았다. 일인 교사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과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미야바라(宮原三治)라는 일본명을 쓰는 이시형 선생이 학생 집합소로 와서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니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회유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사가 쓴 최초의 한국말이었다.⁵¹⁾

“잠시 후”란 어느 정도 흐른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 휴교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 일인 교사들 사이의 무거운 침묵과 흐느낌 소리를 헤치고 나아가 휴교를 알리는, 일본명 미야하라에서 이시형으로 돌아간, 직전까지 일본어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신도 일본어로 소설을 써서 중앙

51) 제농팔십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87쪽.

문단에 데뷔한 이 일본어 교사는 한국어로 말하기 직전까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해방 이후 이시형은 제주 사회 운동에 뛰어들었다. 고칠중, 강창우, 김학림, 한병택 등과 함께 해방 직후 만들어진 민주청년동맹의 후견자 노릇을 하였고,⁵²⁾ 남로당에도 가입하였다. 제주농업학교를 퇴직하던 해인 1947년에 그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당무위원이었는데,⁵³⁾ 남로당은 4·3 사건의 계기가 되는 1947년 3·1 사건이 일어나자 3월 5일 이시형도 참가한 간부회의를 통해 당내 투쟁조직으로 3·1 사건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당 바깥에 합법적인 3·1 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 이시형은 당내 투쟁조직인 투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조직부장이 되어 합법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각 직장의 파업단 조직, 각 직장 파업단을 망라한 읍·면 파업단의 조직, 부락 단위의 대책위원회의 구성, 파업에 대한 전체적 지도를 맡게 된다.⁵⁴⁾ 공식 서류를 통해 작성된 기록을 보면 그가 제주농업학교 교사를 그만둔 것이 1947년 1월 31일이고 그가 남로당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무렵임을 보면, 이 둘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7년의 3·1 사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시형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후의 총파업 투쟁까지 포함한 3·1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명단에도, 남로당원으로 그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⁵⁵⁾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남로당 지도부가 표면화되지 않았던 것⁵⁶⁾에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족들이 증언했듯이 낙향하여 요양 생활을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에게 비극은 6·25 전쟁과 더불어 찾아왔다. 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6.25), ‘불순분자 구속의 건’(6.29) 등 치안국 통첩을 각도 경찰국에 발송하여 예비검속을 명하였

52) 「김찬흡 선생의 제주인물 대하실록(53)」, 『제주일보』, 2018.9.3.

53) 박찬식, 앞의 책, 188쪽.

54) 위의 책, 196~204쪽.

55) 위의 책, 207~218쪽.

56) 위의 책, 219~220쪽.

다.⁵⁷⁾ 나중에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요시찰 대상으로 관리하던 귀순자·자수자·석방자로서 195명에 이른다고 한다. 1차는 7월 중하순, 2차는 8월 중순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해병대에 인계되어 총살 혹은 수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남로당 당원이었고, 아마 전향을 했을, 그리고 “요양을 위해” 고향에 돌아와 있었던 이시형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이를 주변에서 지켜본 친척·이웃들은 같은 보고서에서 이시형의 최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에월리에 거주하던 제주농업학교 교사 이시형은 1950년 6·25 발발 후, 에월 장로교회에 저녁 예배를 보러 갔다가 교회로 찾아온 경찰에 연행되어 제주경찰서로 이송,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6일(음력 6월 2일) 경 산지항 부근 바다에 수장되었음. (조카, 1934년생)⁵⁸⁾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같은 장소, 같은 방식의 학살에 대한 증언도 있다.

제주읍 주정 공장에 창고가 여러 개 있었는데, 창고 안에 죄수들, 폭도들이 수용되어 있었음. 당시 제주 동 부두 파출소 앞 암벽에 경찰 경비정 탐라호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4·3사건 당시 어느 날 아침에 경찰 경비정 갑판 위에 제주 바닷돌, 시커먼 돌들이 가득 실려져 있었음. 그 후에 주정 공장에 갇혀 있던 죄수, 폭도들을 데려와서 배에 싣고 나감. 오전 9시경에 사람들을 싣고 나간 후, 오후 1~2시경에 빈 배로 돌아옴. 사람들을 싣고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함. 당시 수장의 방법은, 돌맹이에 줄을 매어서, 그 줄을 사람에게 묶어서, 총을 쏘아서 떨어뜨렸다고 알고 있음. (금영호 선주, 당시 24세)⁵⁹⁾

57) 위의 책, 431쪽.

58) 진실화해위원회, 앞의 보고서, 894쪽.

59) 위의 보고서, 763쪽.

또 보고서에는 증언은 아니지만 이런 구절도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국 대마도에 한국인 시신이 많이 표류했다는 대마도 현지 언론 보도를 접한 후 대마도에 표류한 한국인 시신이 1948~1950년 전후 시기에 제주 지역에서 수장 희생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련 유족회 및 4·3 관련 단체는 제주도를 지나는 해류 중 대마난류가 대마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01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대마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제1회 '4·3 수장 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했다.⁶⁰⁾

'쓰디쓴 경험'이나 '신산함'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한 청년 작가의 이토록 비참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말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무라 마사오는 그의 최후를 알지 못했다. 그의 연구가 이 두 청년 작가의 일제 말 행적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시형과 비슷한 운명을 겪었던 제주 청년 시인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오무라가 이시형의 최후에 대해 보였을 법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이영복과 더불어 일본의 동인지 『청년 작가』의 동인이 되어 '친일 시'를 썼던 황국 청년 요시하라 마사키(良原正樹), 곧 양중호가 그에 해당한다. 오무라 마사오는 일제 말기에 황국 청년으로 살아간 시인을 비난하기는커녕 그런 삶에서 조선인의 아픔을 읽어낸다. 그리고는 “황국 신민화가 되어버린 한 조선인 청년의 아픔, 본인도 또한 이 시점에서는 깨닫지 못하였을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는 조선인의 아픔 못지않게 일본인으로서 아파한다. “그의 글을 읽으면 고통스럽다.”⁶¹⁾ 이러한 감정은 공감이라기보다 연민(pity)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기 자신과 타자 사이의 어떤 종류의 공통성을 인정할 때만, 또 그러한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어떨지 이해할 때만 발생

60) 위의 보고서, 750쪽.

61) 『청년작가』와 제주도 출신의 작가, 『저작집 1』, 409쪽.

하는⁶²⁾ 윤리적인 판단이다. 오무라에게 조선인의 ‘친일’이란 식민지인에게나 식민지 본국인에게나 아픈이고, 또 어찌면 식민지 본국인에게 더 큰 상처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조선인 청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혹은 식민지 본국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상을 펼친다.

황국 청년 요시하라 마사키가 어찌하여 4·3 사건의 와중에 죽었을까. 글로 보아 코뮤니스트가 될 리 만무한 그가 어찌하여 빨치산이 되어 산사람이 되었을까. 이영복 씨는 양종호가 산사람으로 오인받고 군경에 살해당했다고 했지만,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이번에는말로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지려 했고, 그 정열이 당시 닥쳐온 상황 아래에서 그를 한라산으로 인도했던 것이 아닐까. 그 진상이야 지금은 알 길이 없다.⁶³⁾

제주 작가 이영복은 양종호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죽었다고 오무라에게 말한다. 그러나 오무라 마스오는 “진상이야 지금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면 서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양종호가 황국 청년이었던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빨치산이 되어 “이번에는말로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지려 했”다고 상상한다. 오무라에게는 조선인 청년이 빨치산으로 죽는 것보다 황국 신민, 동족의 배반자로 죽는 것이 더 마음 아픈 것이다.

그러나 양종호나 이시형에게도 황국 신민으로 사는 것이 빨치산이나 예비 검속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한 아픔이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오무라 마스오가 전자보다 후자를 높이 사는 것은, 그가 구식민자인 일본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정면에서 마주하며 그에 책임 있게 임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가 더 진척되었다면, 틀림없이 구레모토 아쓰히코라는 창씨명으로만 지면을 떠돌던 조선인 청년에게 오의진이라는 한국 이름을 찾아주고, 또 한 식민지 청년 작가의, 황국 청년으로의 죽음이 아닌 민족을 위한 죽음을 밝혀냈을 것이다. 이 논

62)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 2 연민』, 새물결, 2015, 580-581쪽.

63) 『청년작가』와 제주도 출신의 작가, 『저작집 1』, 410쪽.

문은,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점에서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를 이어받고 있다.

4. 식민자로서 책임지기

오무라 마스오가 이들 두 작가의 작품을 보는 관점은, 그것을 ‘친일문학’이라 인정하지만, 거기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조선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작품에서 읽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임종국이 “보기에 따라서는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극히 불온한 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문학』이 이런 단편을 추천했으니 뜻밖”⁶⁴⁾이라 했던 「금지」(『국민문학』, 1943.9)에 대한 오무라 마스오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그도 임종국처럼 이 소설을 민족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일단 넘겨주지만, 그것을 다시 찾는 귀기 어린 집념”은, “오래된 것에 대한 집착은 감동적이기까지 하”⁶⁵⁾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아들의 방탕과 사업 실패로 남의 손에 넘어”간 집을 “자존심을 걸고 필사적으로 집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⁶⁶⁾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옛것을 되찾는 ‘금지’를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아가 오무라는 이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것을 잃고, 그것을 되돌려놓기 위한 집념이 감동적이다. 그 집념을 전개하는 틈틈이, 잠수복을 입고 ‘휴휴’ 날카로운 호흡을 하는 해녀, 그 해녀가 머릿수건을 풀어서, 새파래진 입술을 떨면서, 몸에 입고 있는 것 전부를 벗어던지고 불에 구워지듯이 몸을 데우는 모습. 용두암을 치는 해명(海鳴), 대나무 요람을 흔들면서

64) 임종국, 『친일문학론』, 교주본 증보판 : 민족문제연구소, 2013, 478쪽.

65) 「제주 문학을 생각한다」, 『저작집 1』, 386쪽.

66) 위의 책, 385쪽.

부르는 제주도 자장가, 서귀포의 굴밭, 마을 변두리의 동문교, 관덕정 납작한 돌 위에서 장기를 두는 풍경 등의 묘사는, 실로 제주도의 것으로서, 이야기 전개 이상으로 감동적이다.⁶⁷⁾

오무라 마사오는 이 소설에 대한 짧은 언급에서 두 번이나 “감동적”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궁지」를 높이 평가한다. 조선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는 집념과 제주도에 대한 사랑을 이 소설에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는 시국이 얼굴을 내밀고 있지 않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영복의 『밭당님』에서 제주도 풍물을 “관광 안내적인 표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생활자의 눈을 갖고 지긋하게 그”⁶⁸⁾린 것을 오무라가 스스로 높이 평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한 제주적인 것은 풍물적인 것에 가깝다. 오히려 「궁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더 생활자의 감각과 가까이 있지 않을까.

해질 무렵이면 붉은빛을 띤 구름이 해면을 암청색으로 비추고, 바다와 하늘이 하나의 실로 이어진 추라도 부근을 다니는 흰 돛과 오사카행 기선이 여러 가지 꿈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바다가 끝나는 저쪽에 있는 육지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아직 한 번도 섬 바깥에 나간적 없는 철수는 이 나무 위에서 아직 보지 못한 나라로 여러 갈래 꿈을 펼쳤다.⁶⁹⁾

집안의 몰락으로 바다 너머 육지로 나가는 꿈이 좌절되어 제주농업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 철수가 회한에 젖어 떠올린 어린 시절의 꿈을 서술자는 위와 같이 묘사했다. 고향이란 벗어버리고픈 굴레이기도 하면서 또 지극히 그림고 사랑스러운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아마 생활자의 감각

67) 「태평양 전쟁하 제주도 문학자들의 활동」, 『저작집 3』, 16쪽.

68) 「제주 문학을 생각한다」, 『저작집 1』, 397쪽.

69) 구레모토 아쓰히코, 「궁지」, 『국민문학』, 1943.9, 97쪽.

이 아닐까. 최소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육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중앙 문단에서 작가를 꿈꾸던 오의진에게는 그러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지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궁지’가 이 소설에 동시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이 서사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궁지」의 서사에서 외부적인 것, 육지의 것은 양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안의 몰락은 경성 H 전문학교에 진학한 형 문수가, 부모가 바라는 고향 여자를 외면하고 서울 여자를 데리고 온 데에서 비롯되었다. 서울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외면으로 아내를 잃게 된 문수의 타락이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의 몰락은 고향을 버리고 바깥을 끌어들이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고향의 것을 고집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집을 되찾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대에서 흙투성이가 된 우리가문의 궁지를, 반드시,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⁷⁰⁾라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옛집을 되찾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형이 만주 도문의 정미소에서 축적한 부, 즉 바깥에서 온 것이었다. ‘궁지’라는 제목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작품을 분석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민족적인 것, 제주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라 이 소설을 해석하겠지만, 끊임없이 바깥, 그러니까 육지에서 제주로 새로운 것을 끌어오는 형의 입장에 서면, 혹은 그들의 각축을 가감 없이 관찰하는 초점 서술자 철수의 입장에 서면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오무라 마사오는 그 가운데 민족적인 것, 조선적인 것에만 주목했다.

이시형의 「이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바다와 빛과 전설과 민요와 한라산이 엮어내는 「이어도」를 읽고 난 느낌은 상쾌하다. 1944년 8월이라는 험한 시점에서 쓰여진 만큼 한층 호감이 가는 작품이다. 다만 「이어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남(南)과 죽미(竹美)가 결혼을 결의하고

70) 위의 글, 103쪽.

“신궁 대전에서 서로를 허락하자”고 조선신궁으로 향하는 장면은 납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가 아닌가 생각된다.⁷¹⁾

앞에서 말한 대로 「궁지」와 「이어도」는 두 사람의 추천작 가운데 시국색이 없는 작품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에 「이어도」에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후 조선신궁으로 향하는 장면은 돌출적이기 그지없다. ‘조선신궁’은 절이나 교회로 대체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두 사람에게 신토나 황국 일본은 이 소설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두 사람을 포함한 속세를 넘어선,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신성한 어떤 곳이면 충분하다. 이 장면은 오무라의 말처럼 “알리바이 만들기”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일본에 대한 관습적이고 무의식적인 추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스승 미나미(南)와 여제자 다케미(竹美)의 사랑을 그린 것인데, 제목인 이어도는 이 소설에서 세 번 등장한다. 우선 다케미가 삶이 힘겨울 때마다 바닷가에서 혼자 부르는 노래가 이어도인데, 미나미는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부터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다. 두 번째는 육지로 떠나는 미나미를 몰래 전송하며, 그의 구애를 거절한 다케미가 홀로 부르는 노래이다. 세 번째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고 조선신궁으로 향하며 다케미가 트렁크를 건네면서 보인 미소에서 미나미가 떠올린 것이다. 다케미는 사생아로 태어나 홀어머니를 잃고 가난한 생활을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 자립적인 여성이다. 작가는 다케미를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케미가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할 때, 타자에게 가 닿으려 할 때 이어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다케미의 자존심 때문에 둘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트렁크를 건네줄” 때 이어도는 미나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이어도는 독립적인 두 인물 사이의 자립적인 연대를 상징한다. 나아가 이를

71) 「제주 문학을 생각한다」, 『저작집 1』, 384쪽.

확대 해석하면 제주인, 조선인의 자립적 연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보면 이 소설은 오무라의 해석대로 민족주의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인, 나아가 조선인의 자립적인 연대는 ‘조선신궁’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교사의 진정성을 중심에 둔 「신임교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진심, 그러니까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네. 그 진정성이 위의 한 사람에게 향할 때 충이 되고 부모에게 향할 때 효가 되며, 학생들을 향할 때 교육애가 되어 나타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3학년 학생 57명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교문에서 군문으로 보내는 것이 나의 이상일세.⁷²⁾

주인공인 신임교사 구스하라가 사랑하는 제자 야스다를, 작은 잘못을 구실로 그를 퇴학시키려고 하는 교무주임에 맞서 지켜내는 것을 그린 이 소설에서 교사의 진정성은 학생을 훌륭한 황국 신민, 황군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둘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감지하지 못하는 곳에 조선인 이시형, 그리고 국어 교사 미야하라 산지가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조선인 청년의 순진함, 순수함이 오무라 마사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의 글을 읽으면 고통스럽다.”라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무라는 민족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시국적인 것과 분리하고, 전자에서 조선인 청년 작가의 진심을 읽고 후자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읽는다.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일본인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조선인 권 영감의 이야기를 그린 구레모토의 「굴레」(『국민문학』, 1943. 11)에 대해서도 오무라는 일본인 주인과 조선인 하인이라는 설정이 흠이라고 하면서도 소설의 묘사와 그것이 그리고 있는 인정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구레모토의 소설이자 학도병으로 나가는 아들을 생각하며 징병검사

72) 미야하라 산지, 「신임교사」, 『국민문학』, 1945. 2, 73쪽.

받으러 가는 학생을, 목숨을 걸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 주는 사공의 이야기를 그린 「벼랑」(『국민문학』, 1944.9)에 대해서도 그는 담담하게 줄거리를 서술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품이 볼품이 없어져 간다고 지적하며 “시대가 가일층 악화되”⁷³⁾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작품들을 “무리한 것 덩어리로 이루어진 작품”⁷⁴⁾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시국적인 요구가 작품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는 생각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시국의 요구에 의해 굴절되어 간 식민지 청년 작가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나아가 일본인인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무라는 담담하게 서술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의 글을 읽으면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식민지는 식민지인에게도 상처이지만, 식민자에게도 상처인 것이고, 그 상흔을 더듬어가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떠맡는 것, 그것이 오무라에게 일제 말기 제주 문학, 나아가 한국문학을 읽는 의미였던 것이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제주인의 문학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이유이다.

5. 남은 문제

지금까지 오무라 마스오의 저작을 따라서 일제 말기에 활약한 제주의 청년 작가 오의진과 이시형의 삶과 소설을 읽어보았다. “~을 따라서 읽다”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논문이 오무라 마스오의 저작을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오의진과 이시형의 삶과 소설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같은 대상을 논한 오무라 마스오의 저작을 끌어옴으로써 그의 제주 문학 읽기, 나아가 한국문학 읽기의 특징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무라 마스오는 일제 말기 제주 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목한, 제주 바

73) 「제주 문학을 생각한다」, 『저작집 1』, 387쪽.

74) 위의 책, 388쪽.

같은 첫 연구자이다. 그동안 김동윤, 김병택, 김영화 등 제주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내부의 여러 연구자들이 제주 문학사를 서술하는 가운데 두 작가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지만, 외부에서 이들에게 주목한 연구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일제 말기 문학에 접근하면서 제주 문학을 발견한 첫 사례가 오무라 마사오의 연구인 것이고 그것이 ‘국민문학’ 혹은 ‘친일문학’의 범주에서 이들 문학을 연구한 첫 번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제주도 문학자가 왜 이렇게 부상했던 것일까. 우연의 결과인가, 아니면 뭔가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⁷⁵⁾

오무라 마사오는 여기에 대해 대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질문 자체는 소중하다. 일제 말기 문학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1940년대를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1943년에서 1945년 8월까지의 문학은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작가들이 사라지고 신인들이, 그것도 창씨명으로만 된 신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도 그 한 이유일 터이고, ‘결전문학’이라고 하여 사상적 고뇌가 없는 선전 문학이라는 편견도 그 한 이유일 터이다. 또 이 시기의 문헌이 많이 소실되어 남아 있는 문헌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일 터이다. 오무라 마사오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 시기, 곧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의 ‘국민문학’이란 무엇이었던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이 그에 이르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5) 「제주문학을 생각한다」, 『저작집 1』, 389쪽.

■ 참고문헌

-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 - 운동주와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_____,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3 -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7.
_____,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4 -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소명출판, 2017.
_____,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5 - 한일 상호이해의 길』, 소명출판, 2017.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서, 2012.
- 임중국, 『친일문학론』, 교주본 증보판 : 민족문제연구소, 2013.
- 제농팔십년사 편찬위원회, 『제농 80년사』, 제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1990.
-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전예원, 1994.
-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옮김, 『고뇌하는 일본』, 휴머니스트, 2011.
_____, 『내재하는 아시아』, 휴머니스트, 2011.
- 마샤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 2 연민』, 새물결, 2015.
- 박오성, 『일제시기 목포공립상업학교의 학생 구성과 내선공학』, 『청람사학』, 1923.6.
_____, 『일제시기 목포공립상업학교의 학생 구성과 내선공학(內鮮共學)』, 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23.9.
- 윤대석, 『일제 말기의 등단제도와 제주도 출신 신인 작가』, 『국제어문』, 2022.9.
- 장문석, 『조선문학을 권함』, 『한국학연구』, 2019.8.

Reading Jeju Literature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long Omura Masuo

Yun, Daeseok*

In light of Masuo Omura's research,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lives and novels of Oh Ui-jin and Lee Si-hyung, who wrote novels in Japanese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is, this thesis attempted to indirectly reveal the perspective of Masuo Omura's research on Jeju literature and even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reveal a section of literature from 1943 to 1945, which had been rarely discussed due to data or language problems.

The biggest achievement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real name (Oh Eui-jin) and life of the writer, who was called only as his Japanese name, Atsuhiko Gureimoto. Leaving his hometown of Jeju early on, Oh worked as a bank clerk in Mokpo, Cheonan, and Gwangcheon, and wrote a novel in Japanese to apply for various contestants. Lee Si-hyung wrote a novel in Japanese using his experiences as a teacher in his hometown of Jeju. After liberation, he joined a movement for social transformation and was slaughtered by the power of the nation-state.

Their literature depicts the antagonism between the Korean or Jeju-style and the outside. Oh Eui-jin's "Proud" and Lee Si-hyung's "Jeodo" can be said to be representative novels, and in this respect, they have inherited the spirit of "Kokumin Bungaku(國民文學)". However, Masuo Omura reveals a certain bias by interpreting these novels as the master of the Korean and the ethnic

* Professor, the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mong them. This bias forms the basic perspective of Masuo Omura's research on Joseon literature.

Key words : Masuo Omura, Jeju Literature, Oh Ui-jin, Lee Si-hyung, National Literature